

# 推 薦 辭

오늘날의 세계는 냉전체제의 종식과 NAFTA, EU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 경향, WTO체제 출범 등에 따른 세계경제의 무한경쟁 상황하에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

특히, 세계각국은 이러한 경쟁의 핵심요소를 정보화로 인식하고 정보통신 및 정보산업 부문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.

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'94년 12월 체신부를 '정보통신부'로 확대개편 하였습니다.

이는 21세기 고도정보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전략산업이 정보통신 및 정보산업 분야라는 인식하에 정보통신과 정보산업 및 뉴미디어 관련 정책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자는 것입니다.

이에 부응하여 정부는 국가정책의 전략사업으로 2015년까지 총 45조2천여억원을 투입하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계획을 수립하고, 을 해부터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건설에 본격 착수하였습니다.

이와 아울러 APEC 역내의 원활한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을 위해 아시아태평양정보통신기반(Asia-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; APII) 구축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보산업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.

또한 정보화 촉진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을 위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설치,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초고속정보통신사업을 위한 정보화촉진기금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「정보화촉진기본법」을 제정하여 소프트웨어산업, 데이터베이스산업 분야의 육성 및 정보산업분야의 핵심기술 및 부품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시켜 정보산업의 수요를 확대·창출하여 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

확입니다.

정보통신부 발족이후, 우리나라의 정보화 및 정보산업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시점에 발간되는 「정보산업연감」의 발간은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의 현주소를 조망할 수 있게 하고, 한편으로는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귀중한 자료로 제공되어 정보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.

새로운 체제로 「정보산업연감」의 발간을 위해 참여해 주신 집필진과 책자발간에 애써주신 코리아헤럴드·내외경제신문사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
1995년 7월

정보통신부장관    경    상    현